



라면

굵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식품

막대 핫도그

버스 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착안한 간식

발명역사 속으로

인스턴트식품 중에서 단연 으뜸으로 손꼽히는 라면! 식품업계의 혁명으로까지 극찬 받았던 라면은 일본에서 시작됐다. 라면은 1958년 일본 닛신(日清) 식품의 회장 모모후쿠(安藤百福)에 의해 개발되어 시판된 식품이다.

1950년대의 일본은 제2차 대전 패배의 후유증으로 인해 건국 이후 최대의 고난기를 겪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여 미국에서 밀가루를 지원받아 빵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안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쌀밥을 주식으로 하던 식습관 탓에 빵만으로는 공복감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밀가루를 이용한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았는데, 어느 날 술집을 간 안도는 덴뿌라를 기름에 튀기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게 된다. 바로 집으로 돌아온 안도는 밀가루를 국수로 만들어 튀겨 보았고, 이후 몇 차례 실험 끝에 결국 라면 개발에 성공하였다. 안도가 만들어 낸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아지초케면(味附麵)은 국수발에 양념을 묻힌 것으로 끓는 물에 2분만 넣고 끓이면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63년 삼양라면이 일본의 라면 제조기술을 도입해 삼양라면(치킨탕면)을 선보이면서 라면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당시 일반인들에게 라면은 생소할 뿐이어서 초기 반응이 시큰둥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의 혼분식 소비 권장 정책에 힘입어 라면이 대중화됐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우리 일상에 빠질 수 없는 식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도 손쉽게 구해먹을 수 있는 핫도그! 이는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은 세계인의 식품이다.

특히 조그만 막대 핫도그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데, 이는 누가 어떻게 발명했을까?

일본의 중소기업업체 기봉식품은 직무발명제도를 채택하여 직원들의 아이디어 개발에 사기를 북돋우고 있었다. 직무발명제도란 사원이 일과 관련하여 발명을 했을 경우 특허권은 회사가 갖지만, 로열티는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야마모토 유키오라는 한 사원이 꼬치안주를 만들어 보상금과 승진의 행운을 잡은 후부터였다.

1977년 기봉식품의 생산부에 근무하고 있던 다나카 역시 발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위해 버스에 올라탄 다나카의 눈에 한 모습이 포착됐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스의 손잡이를 단단하게 움켜쥔 소녀의 주먹이었다. 그 순간 작고 귀엽게 튀긴 과자를 떠올린 그는 긴 막대에 소시지를 끼운 핫도그를 발명했다. 이로 인해 다나카는 보상금과 함께 공장장으로 승진했고, 기봉식품은 세계적인 식품회사가 되었다.